

## 햄 · 소시지 원료수입에 관한 공청회

# “육가공품 원료육 수입은 국내양돈농가 설 자리 뺏는 꼴”

◇… 지난해부터 육가공업체들이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돼지고기를 대폭 줄이고, 수입 칠면조고기와 토끼고기를 사용해 양돈업계 및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돼왔다.

이에 따라 우리 농축산물먹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 14일 서울 종로소재 기독교회관에서 본회의 후원하에 햄·소시지 원료수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노원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강광파 이사(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가 기초발제를 했으며, 양돈업계에서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가, 육가공업계에서는 남창현본부장(제일제당 육가공사업본부장)이, 학계에서는 권영근부소장(한국농어촌문제연구소)이, 소비자단체에서 김경희총무(대한기독교장로회) 등 각계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의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

**사회자 :** 여러가지로 준비가 미진한 가운데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의 모임에서 오신 강광파이사께서 기초발제를 해주겠다.

**소비자 몰래 햄·소시지 원료를 돼지고기에서 수입칠면조와 토끼고기로 대체한 것은 문제**

**강광파 :** 육가공회사에서 햄과 소시지의 원료로 돈육사용비율을 줄이고 수입 칠면조고기와 토끼고기로 대체해서 사용해서 사용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일선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다.

칠면조절단육 수입이 '89년에 비해 '90년에 들어와 977배에 달해도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아 제조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가격의 인상효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주고 장기적으로 농민에게 타격을 주게 된다.

또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육류안전성검사가 선행되지 않고 무방비상태로 수입을 해놔서 안심할 수가 없다. 물론 외제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축산물 가격안정의 실패로 인해 생산기반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사육두수가 늘어 가격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소비자와 양돈업계에 사과. 국내 돼지고기가 격 상승으로 수입육 사용 불가피

**남창현:** 먼저 업계를 대표하여 소비자와 양축 농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70년대 양돈업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기적인 가격등락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돈육의 안정된 소비를 추진하기 위해 육가공산업을 육성시켜겠다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인식에서 '80년 제일제당(주)과 롯데햄이 육가공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육가공에서의 사용 돼지두수는 '90년의 경우 968,000두로 전국 돼지 총생산량의 12.7%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36%와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향후 30%수준으로 사용비율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자면 원료인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야 하는데, 작년에 돼지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는 '89년 연평균에 비해 15%나 줄어 햄·소시지의 가격인상요인이 30% 정도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자리수 물가를 이유로 인상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싼 원료를 사용했다 해서 제품가격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칠면조육 사용으로 인상요인을 억제했다. 하지만 계속 쓰지는 않을 것이며, 제품 성분 문제는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문제는 원료난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사는 대양돈농가 지원책의 일환으로 위탁사육으로 최저마진 보장단가의 계약을 한다든지 양돈농가에 용자를 하는 등의 국내양돈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수출신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국내 돼지 사육두수를 2천년에 900만두를 예상하는 데 비해 현재는 450만두에 불과해, 2배에 해당하는 사육두수로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생

산자협회,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87년에 돈육통조림이 개방되었고 '90년에 소시지가 수입개방 되어서 3년만에 값싼 외국상품이 들어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가공업계가 어려워지는데, 이에대한 여파로 농가와 업계가 모두 침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작년에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나 50%의 양축농가가 도산하는 싹점의 돼지가격 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노영한:** 현재 농민과 축산농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선진국은 모두 농업이 발달해 있고 농촌이 망하면 그 나라도 망한다는 말이 있다.

돼지가격이 '90년도에 80%나 올라서 농가가 큰 돈을 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89년 불황으로 50%의 농가가 양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육두수 감소로 가격이 급등했고, 가격비교를 양돈포기 상태 때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만약 가격조절기능이 있어서 생산·비축·소비조절이 적절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돈규모로 '87년 60만두 '88년 65만두, 현재 55만두로 금년말에는 60만두를 예상하고 있고, 과거의 양돈경기 사이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돼지와 닭은 번식주기가 짧아 가격변동주기를 3년으로 보고 있어 여러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내년에는 파동을 걱정할 정도이다. 그리고 2천년대에 돼지 사육두수 900만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고기수입업자들의 말로, 경상남북도 넓이에 해당하는 덴마크도 900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생산농가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외국원료를 수입해 쓰기 시작하면 농가가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소비자들 또한 값싼 외국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란 점이다.

사육두수를 늘리려면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하는데, 사료·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과 원료수입의 규제요인을 제거하면 20%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돼지값이 오르면 수입하고 하락하면 방지하는 정책의 악순환과 현재 도시인구 집중문제도 농촌의 이농문제와 관련지어야 한다. 농촌을 포기하지 말고 농촌에 중점을 두어야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어 안심하고 우리농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영세한 양돈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킬 뿐**

**권영근 :** 현재의 농촌문제는 농업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 농업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가공된 통조림부터 먼저 수입하지 말고 농업을 국내 농산물 가공산업과 관련지어 발전시켜야 한다는 발상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양돈협회의 노전무님 말씀대로 돼지호당사육두수 1천두 이하농가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양돈업은 구조적으로 영세하다. 그런데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양돈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움직임 등은 대기업의 독점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은 농촌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경제성·생산성·효율성에서 탈피하는 측면에서 농업을 보호·재건·회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육가공제품에 칠면조 절단육 등 저가육류를 사용하는데 분노**

**김경희 :** 주부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맛있고, 안전하고 간편한 제품을 이용하게 된다.

제품에 사용한 원료가 바뀐 것에 정부와 기업을 불신하고, 칠면조 절단육이란 것이 가공육의 경우 저가부위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사먹으라는 광고는 많이 하는데, 성분이 바뀐 것은 알려주지 않았고, 강원도 원주지역 시민의 모임의 발표에 의하면 유통기간이 200일이나 지난 것도 팔리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농촌을 지키는 일은 국민전체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수입을 능사로 하는 업계의 제품을 불매하도록 여성신도회는 다짐했다.

**질의응답 :** 모든 참석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남을 욕하는 것은 소비자와 양돈농가, 가공업계의 공동손해라고 다같이 인식했다.

그리고 농가와 업계를 발전시키고 안정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금을 붙여 농가에 돌려주는 방안, 농가와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보의 지원책, 축산물 유통문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조정, 세계 다국적기업 국내진출 규제방안 등이 토의되었다.

각 분야별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는 안정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을, 육가공업계는 안정적인 가격의 원료공급을, 양돈농가는 적정이윤을 보장하여 꾸준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같이 이익을 보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와 참관자들의 열기는 대단했고, 지금까지와 같이 말로만의 단합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국제경쟁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리 : 이춘호)